

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·인버스 ETP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

(1) 단일종목 기반 ETP(ETF·ETN)는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므로 해당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.

- 단일종목 기반 ETF는 분산 효과가 제한되는 만큼, 개별 기업의 악재,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.
 - 예를 들어, 해당 기업의 실적, 투자 계획 발표 등 각종 뉴스에 상품 가격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.

※ 일반 ETF와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 명칭에 'ETF'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, '단일종목'임을 표기할 예정입니다.

(2)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·인버스 ETP는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(지렛대 효과) 될 수 있으며, 횡보장에도 손실이 발생(음의 복리효과)할 수 있어 장기 투자 보다는,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.

- 단일종목 레버리지·인버스 ETF는 단일종목 가격이 투자자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 '지렛대 효과'로 단기간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,
 - 단일종목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단일종목 가격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'변동성 잠식 위험'이 있습니다.
 - * <예시> 지수가 20% 하락 후 다시 20% 상승했을 때, 일반 상품(x1)은 100→80→96으로 4%의 손실이 발생하지만, 레버리지 상품(x2)은 40% 하락 후 40% 상승하므로 100→60→84로 16%의 손실 발생
 - 이에 적립식 등 장기 투자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, 특정 종목에 대한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.

(3) 단일종목 기반 ETP는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, 매일 본인의 투자 내역을 점검·진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.

- 新상품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집중 투자 위험, 손실 확대 등 특유의 투자 위험을 숙지한 후, 본인의 투자목적, 경험 및 위험 감내 수준에 적합한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레버리지·인버스 상품의 경우, 투자에 앞서 기본예탁금(1,000만원) 예치 및 사전교육(일반교육 1시간 + 심화교육 1시간) 이수가 필요합니다.

- 금융투자교육원 과정명 : [사전교육] 국내외 레버리지 ETP Guide
 - 수강방법 : [https://www.kifin.or.kr-이러닝-\[사전교육\]](https://www.kifin.or.kr-이러닝-[사전교육)
 - 교육 이수 → 인증번호 입력(증권사 HTS 등) → 주문제출